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조형일*
(인천대학교)
진대연**
(호원대학교)

ZO, Hyoung-il, & JIN, Dae-Yeon. (2017). Teaching writing in Korean as an L2 through elaborating word defini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1, 117-13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method for improving writing skills of foreign students through elaborating word definition. We took a position that brand-new teaching methods of writing are needed for specific learning groups, especially for students who study in Korean universities because they are supposed to develop and prove writing skills in order to perform their studies successfully. First, in chapter II,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eaching writing in Korean as an L2 in context of teaching tradition and made sure that practical methods of teaching writing for academic purposes are still insufficient. Next, in chapter III,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results focused on word definition and found elaborating its definition useful for improving writing skills for tertiary level students. Finally, in chapter IV, we presented a practical teaching method for writing through elaborating word definition by showing the results which 15 foreign students (from China and Japan) produced while participating in the writing class.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ew method for teaching writing in Korean as an L2 relating word learning, but expect much more teaching methods to be developed and presented.

Key Words: teaching Korean as an L2, writing, vocabulary, elaborating, word definition

I. 서론

국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60여 년이 흐르면서 한국어 교육은 내적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설기관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 제1저자

** 공동저자

성장하게 된다. 이후 15년 남짓의 기간 동안 국내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집단 모두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학업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그룹이라 칭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만 살펴보다라도 2001년 4,898명에서 2017년 9월 현재 97,736명(어학연수생 제외)으로 그 사이 20배 가량 급증하였다.¹ 이렇게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관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계 안팎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어 교육이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학습자 집단별로 학습 목적과 환경 등이 다르고 학습자 개인에 따라서도 학습 배경과 스타일 등에 차이가 존재해 이를 고려한 교육 방안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여러 여건이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특히 교육의 성패는 학습의 실현 정도에 따라 갈리고 학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정치하게 살펴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안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주로 학습보다는 교수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특정 목적²의 한국어 학습자로 분류해 왔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 목적의 학습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학습 단계별로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어 교육에서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도모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습자를 교육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의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능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학업 능력의 형성과 수행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쓰기 능력의 향상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학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어휘의 학습을 쓰기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적용한 쓰기 교수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학습 대상을 이처럼 특정하게 설정한 이유 중 첫째는 이들이 최소 3급 수준의 일반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7년 9월)에 따르면 한국어연수 비자(D-4·1) 체류자 44,245명, 외국어연수 비자(D-4·7) 체류자 4명을 더해 넓은 의미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수는 총 141,985명이다. 한편 같은 기관의 통계연보(2001년)에 의하면 2001년은 유학 비자(D-2) 입국자가 4,898명, 일반연수 비자(D-4) 입국자가 3,438명이었는데 일반연수의 기준이 현재의 한국어연수 및 외국어연수와 조금 달라 통계를 구분해 제시한다.

2 다수의 저술에서 ‘특수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와 상대 개념인 일반 목적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불특정 목적을 일컫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특수 목적’ 대신 ‘특정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실질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우선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의 양상을 간추려 보고 학업 목적의 학습자에게 쓰기 능력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어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와 관련된 제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쓰기 교육으로 맥락화함으로써 교육적 유용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여 교수 학습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실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의 양상

쓰기는 가장 단순히 정의하면 문자를 매개로 하는 언어 표현 기능이다. 그리고 이는 생각하기(thinking)와 문자화하기(encoding)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촉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쓰기 능력은 단어와 문장의 표기, 문장의 생성 및 연결, 텍스트의 조직 및 배치 등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쓸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하위 기능들을 결합하는 언어의 종합 운용 능력이다. 그런데 외국어 또는 제2언어 학습자, 그 중 특히 성인 학습자의 쓰기는 상대적으로 사고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결부되는 측면이 강하다. 제1언어 쓰기의 지식과 경험이 목표어(target language) 쓰기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도 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 왔던 까닭에 쓰기 능력의 신장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입장이 1990년대 후반 한국어 쓰기 교육의 주류 담론을 형성하였고³ 그 영향력은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쳐 온 것은 쓰기를 언어 학습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보조적 기능(support skill)으로 다루어 오던 한국어 교육 현장의 관습이었다. 즉 쓰기를 어휘나 문법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 문장을 생성하는 차원에 집중한 것인데 이는 쓰기 교육에 대한 접근법이 언어, 텍스트, 과정, 장르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흐름(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4, p. 1167)에서 볼 때 한국어 쓰기 교육이 아직도 초기의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물론 200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의 대상 집단이 다양화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쓰기 교육에도 새로운 이론과 교수기법들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3 김유정 외(1998), 김정숙(1999) 등이 대표적인 관련 논저이다.

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쓰기 교육이 언어 또는 텍스트 중심의 쓰기⁴에서 과정 또는 장르 중심의 쓰기로 변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일반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한글 자모의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형과 어휘를 익혀 정확성을 함양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강의 틀로 자리 잡혀 있다(진대연, 2015, p. 149).

이에 비해 학업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유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여 장르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과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 텍스트, 과정을 아우르게 설계된다. 이는 일반 목적의 쓰기 교육에서 언어를 중심에 두고 텍스트, 과정, 장르를 통합하는 구성의 역방향 설계라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앞에서 언급한 접근법들의 절충을 피하는 것이며 거시적인 면에서는 일정한 체계를 갖춘 듯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체계성 있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진대연(2015, p. 150)은 여러 이유 중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의사소통 중심의 기능 통합 수업에서 쓰기가 2차적인 기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업이 제한된 시간 안에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어 교사 스스로가 쓰기 또는 쓰기 교수에 자신이 없거나 교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도 전제로 하지만 학업 목적에 맞는 한국어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업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쓰기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어법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업 목적의 쓰기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작문과 보고서 쓰기를 유럽공통참조기준(김한란 외, 2007, p. 77)에서 B1 이상의 수준으로 기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업 목적의 쓰기는 아는 바를 단순히 진술하는 것(knowledge-telling)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knowledge-transforming)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아는 바를 재구성해서 쓰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업 목적의 쓰기에서는 사고의 정교화를 유도하는 교수 학습 방안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4 텍스트 중심의 쓰기는 결과 중심의 쓰기로도 불리는데 특정 텍스트의 유형을 분석하고 모방함으로써 유사 텍스트를 만들게 하는 것이 교수 학습의 주요 목표였으며 완성된 텍스트를 평가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과제였다(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4, p. 1167).

III.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와 쓰기 교육

사전의 표제어에는 저마다 해설 또는 설명이 달려 있다. 한 나라 언어의 사정을 구축할 때에는 표제어를 선정한 후에 그 표제어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 내에서 풀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표제어를 설명하는 어휘 즉, 설명어휘(meta-language)의 수준에 따라서 사전의 활용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란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보다 어휘의 뜻풀이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유의어, 반의어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김광해(1991, 1993, 1997,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아름답다」와 「예쁘다」의 뜻풀이 방식

[illegible]

‘아름답다’의 뜻풀이는 “「1」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2」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룩한 데가 있다.”로 되어 있고 ‘예쁘다’는 “「1」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이쁘다 「1」. 「2」 행동이나 동작이 보기에 사랑스럽거나 귀엽다. ≒이쁘다 「2」. 「3」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행동이 발라서 흐뭇하다. ≒이쁘다 「3」.”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처럼 뜻풀이란 한 단어를 정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두 어휘와 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곱다’는 “「1」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2」 색깔이 밝고 산뜻하여 보기 좋은 상태에 있다. 「3」 소리가 듣기에 맑고 부드럽다. 「4」 만져 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 「5」 가루나 알갱이 따위가 아주 잘다. 「6」 상냥하고 순하다. 「7」 ((주로 ‘곱게’ 꼴로 쓰여)) 편안하고 순탄하다. 「8」 ((주로 ‘곱게’ 꼴로 쓰여)) 그대로 온전하다. 「9」 ((주로 ‘곱게’ 꼴로 쓰여)) 흔적이 없이 깔끔하다.”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이들의 뜻풀이를 비슷한 의미군으로 묶어서 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의 뜻풀이 비교⁵

구분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1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색깔이 밝고 산뜻하여 보기 좋은 상태에 있다
			소리가 듣기에 맑고 부드럽다
			만져 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
2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룩한 데가 있다	행동이나 동작이 보기에 사랑스럽거나 귀엽다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행동이 발라서 호뭇하다	
3			가루나 알갱이 따위가 아주 잘다
			상냥하고 순하다
			편안하고 순탄하다
			그대로 온전하다
			흔적이 없이 깔끔하다

이들 어휘 간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1영역과 2영역에서 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단어는 모두 보이는 면이나 형태, 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좋게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카츠(Katz)나 카르납(Carnap)이 주장하는 의미공준(meaning postulate)의 함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들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단어는 모두 마음씨나 동작의 인식에도 쓰인다. 그러나 ‘곱다’는 다른 두

5 여기에서 뜻풀이 구분은 사전에 정의된 어휘를 각각 1) 시청각 중심의 만족감, 2) 행위의 만족감, 그리고 3) 다른 단어에 없는 속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유의어 뜻풀이의 비교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인 것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단어에 비해 그 의미 영역이 조금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뜻풀이는 이처럼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⁶

사전의 뜻풀이 정보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재수(2003), 도원영(201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보면 사전에 뜻풀이된 정보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두 연구에서 살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사전의 편제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사전의 숙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김광해(1998)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어휘를 완벽하게 틀에 맞춰 설명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다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정의해 나가는 작업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휘의 뜻풀이를 정교화해 가면서 특히 유의어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광해(1998, p. 19)에서 “유의어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훈련은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의어군이란 문자 그대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을 서로 비교하고 변별해 보도록 하는 일은 흥미로운 언어 학습 과정의 하나가 된다. 특히 무수한 유의어군은 최근의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탐구 학습의 자료로서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관해 논한 내용은 되새겨 볼 만하다.

어휘의 뜻풀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은경(2016), 홍종선(2015), 최정진(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은경(2016)에서는 한국어 사전에 기술된 연결어미의 뜻풀이를 도식화하여 비교함으로써 뜻풀이의 모호함, 일관성 없음, 용어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홍종선(2015)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의 뜻풀이 원칙과 그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뜻풀이에서 어느 정도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남아 있음을 다양한 실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최정진(2014)에서는 특별히 동사에 집중하여 이의 뜻풀이와 문법 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사 항목의 뜻풀이로 제시된 문법 격들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⁷ 이들은 모두 어휘 뜻풀이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보다 나은 뜻풀이 방식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어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작동하는 언어 기능을 구현하는 세포와 같은 존재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세포가 없으면 유기체가 구성될 수 없듯이 어휘가 없으면 언어 생활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의

6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유의어나 반의어, 다의어의 교육을 위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어휘의 뜻풀이에 집중하고 이들을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뜻풀이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7 그 밖에 국어 교육에서 뜻풀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연구로는 윤구희(2012)가 있으며, 사전 뜻풀이에 대한 이전의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에는 한영균(1994), 이기황(2007), 옥철영 외(2011) 등이 있다.

의미와 기능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뜻풀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뜻풀이를 활용한 교육은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등의 교육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어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는 유의어와 반의어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II장에서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의 양상을 정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쓰기가 어휘 학습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학업 목적의 한국어 쓰기에서는 학습자가 아는 바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교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연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 방안이 동원될 수 있다. 어휘 학습을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서의 쓰기가 아닌 쓰기 학습을 위한 어휘의 활용 방안인 것이다. 이 방안을 통해 학습자가 어휘의 뜻풀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뜻풀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제공되는 풀어 쓰기 연습으로 학업 목적의 쓰기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을 실행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학습의 대상은 수도권의 I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로 이들은 한국어 4급을 마치고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듣고 있다.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어휘 뜻풀이를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 수준을 4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외국인 유학생 15명이 이 수업에 참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학습자 10명, 일본인 학습자 5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2명(중국인), 여학생이 13명이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제공받은 교수 자료와 수행한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재를 보이도록 하겠다. 중급 1단계를 마친 ‘중급 2단계 진입 학업 목적 학습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을 이하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단순히 학습자라 칭하고자 한다. 일부 자료는 이 글의 <부록>에 추가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것이다. 자료의 구성은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뜻풀이 적용 쓰기 교수 학습 모형 1(내용)과 2(방법), 총 10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수업 진행에 따른 학습자의 주요 수행 결과,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쓰기 교수 학습의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2

학습자 대상 어휘 뜻풀이 적용 쓰기 교수 학습 모형 1(내용)

대상 어휘	뜻풀이 안내 표현	활용 가능 표현	어휘 적용 예문
주장하다	의견 내세우다	...을/를 A/V다고 ~ N(이)라고 ~	남녀평등을 주장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말하다	알리다 이야기하다	...을/를 ~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찬성하다	행동/의견/제안 좋다/옳다/판단 하다	...에 ~ ...데(에) ~ ...에 대하여 ~ A/V다고 ~ N(이)라고 ~	그의 의견에 찬성하다. 그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동의하다	의견 승인하다/시인 하다		그 사람을 추천하자는 안에 모두들 동의했다. 나는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론하다	논설/논평 다른 의견 펼치다 반박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설에 대하여 반론했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반박하다	주장 다른 의견 반대하다		발언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상대편의 논거에 대하여 반박하다,
반대하다	행동/견해/제안 따르지 않다 맞서다/거스르 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다.
추가 활용 표현		-에 따르면/의하면 -다고/라고 한다 예를 들다 -에 달한다 -에 불과하다	

먼저 대상 어휘, 뜻풀이 안내 표현, 활용 가능 표현, 어휘 적용 예문을 정리한 ‘학습자 대상 어휘 뜻풀이 적용 쓰기 교수 학습 모형 1(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제시한 어휘들은 학업 목적의 한국어 교수 학습 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어휘 ‘주장하다-말하다, 찬성하다-동의하다, 반론하다-반박하다-반대하다’는 각각 유의 관계에 있다. 이 부류의 어휘군을 학습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학업 목적의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사고도구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어휘와 함께 제시된 문장을 참조하여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 보고 자신이 활용 가능한 여러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모듈별로 학습자들은 각자가 만든 문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자신이 만든 문장과 다른 학습자가 만든 문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대상 어휘의 뜻풀이를 만들어 보게 된다. 그 후에는 모듈별 토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작성한 어휘의 뜻풀이를 발표한다. 발표와 토의 종료 후 학습자들은 과제로 저마다 자신만의 어휘 사전을 만들게 된다.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다음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들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읽고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실현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텍스트와 유사한 글을 작성하게 된다. 표 3은 이러한 과정을 정리해 보인 것이다.

표 3
학습자 대상 어휘 뜻풀이 적용 쓰기 교수 학습 모형 2(방법)

기 초 ⁸	1단계	대상 어휘의 의미를 예문과 함께 짐작하도록 한다.
	2단계	활용 가능한 여러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3단계	학습자들끼리 만든 문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4단계	학습자 모듈별로 대상 어휘의 뜻풀이를 만들어 본다.
	5단계	학습자 모듈별로 작성한 뜻풀이를 발표 토의한다.
적 용	1단계	대상 어휘와 뜻풀이를 정리하여 자신만의 사전을 만든다.
	2단계	학습된 어휘(대상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읽는다.
	3단계	주제를 정해 읽은 텍스트와 유사한 글을 작성해 본다.
정 리	1단계	학습자가 만든 뜻풀이에 대한 토의로 이해를 심화시킨다.
	2단계	학습자가 작성한 글의 피드백을 수행한다.

8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기존 지식에 기대어 귀납적인 방식으로 뜻풀이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때 오류가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 점에 대한 보완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설계한 수업을 직접 수행해 본 결과 기초 단계는 2차시 정도, 적용과 정리 단계는 3차시 정도로 교육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처음 접하는 수업 방식에 낯설어 하면서도 학습자들은 기초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점차 서로의 의견을 나뉘가면서 활기를 띤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모둠을 나눌 때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를 섞는 것이 학습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섞어 쓰지 않고 한국어로만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⁹ 따라서 여타의 한국어 활동과는 다르게 이 수업에서는 조원의 모국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다. 실제로 서로의 의견 교환이 많이 필요한 기초 3단계 진행 시 중국인 학습자들 사이에서 일본인 학습자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조원을 모국어별로 재편성하였다. 그러자 학습 모둠별 활기가 살아나며 교실 역동성이 확보되었다.

그림 2

어휘의 뜻풀이 교수 학습(의미 이해와 문장 만들기) 자료 예시 1

1단계: 다음 단어의 의미를 예문을 보고 짐작해 보세요. *참작하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

추정하다	남녀행동을 추정하다.
말하다	그는 앞으로 계속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찬성하다	그의 의견에 찬성하다.
동의하다	그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반론하다	그 사람을 추천하는 안에 모두를 동의한다.
반박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설에 대하여 반론했다.
반대하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발언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상대편의 논거에 대하여 반박하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의 의견을 반대하다.

1. 주장하다: 어떤 사람이 한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지지한다는 행동입니다.

2. 말하다: H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3. 찬성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인종화하고 동의한다.

4. 동의하다: 사람이 어떤 관점이나 행동을 인종화하고 동의한다.

5. 반박하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반대하고 과거의 의견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6. 반대하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반대하고 과거의 의견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7. 반대하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반대하고 동의한다는 것이다.

2단계: 알의 단어와 아래의 여러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추정하다	...을/를 ~ ...에 ~	일본 일반 시민들, 위안부 조처를 전후한 생모들의 경우, 유족들이 많을
말하다	...에 대하여 ~ A/V라고 ~	생생한 학생들의 고백한 모험을 보니 신나하다고 말했다.
찬성하다	...에 대하여 ~ ...에 따르면	정치적은 인종과 민족의 국경선에 초점을 두어 찬성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동의하다	...에 의하면 ...라고 한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을 전적으로 동의하면 안된다.
반론하다	...라고 한다. 예를 들면 ~면	사회 정치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이 많지만 인종한 사람도 많지 않다.
반박하다	...시 ...도, 하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장난의 관점을 반박하여 정반대로 반박하게 하였다.
반대하다	...에 달한다. ...에 불리하다	이런 관점은 사람들의 의견을 불쾌하고 과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9 학습자들이 4급을 마치고 5급 단계의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언어 능력은 중급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학습자의 모국어인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설계 당시에는 한국어로 토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매우 더디 학습자의 모국어로 수행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림 3

어휘의 뜻풀이 교수 학습(의미 이해와 문장 만들기) 자료 예시 2

1단계: 다음 단어의 의미를 예문을 보고 짐작해 보세요. *집작하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

① 주장하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중입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② 말하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그의 의견에 찬성하다.
③ 찬성하다	그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았. 모두들 동의했다.
④ 동의하다	나는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설에 대하여 반론했다.
⑤ 반론하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발언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⑥ 반박하다	상대편의 논거에 대하여 반박하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⑦ 반대하다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다.

- ① 주장하다: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② 말하다: '주장하다' 보와 똑같이 쓴다.
 ③ 찬성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④ 동의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한다.
 ⑤ 반론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동의한다.
 ⑥ 반박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동의 할 때 쓴다.
 ⑦ 반대하다: ~~찬~~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부동의한다.

2단계: 앞의 단어와 아래의 여러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장하다	...을/를 ~ ...에 ~	나는 여성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말하다	...에 대하여 ~ A/V'다고 ~	법무부 머표자는 여성아동보호법을 수정하겠다고 말한다.
찬성하다	N(이)라고 ~ -에 따르면	나는 그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찬성한다.
동의하다	-에 의하면 -다고 한다.	나는 이 계약문서에 모두 동의한다.
반론하다	-라고 한다. 예를 들다 -면	변론머회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강력히 반론했다.
반박하다	서 또, 하지만	시민들은 그 후보자의 연설에 반박한다.
반대하다	-에 달한다. -에 불과하다	나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림 2와 그림 3의 자료는 기초 단계에서 이루어진 실제 학습자의 어휘 뜻풀이 교수 학습 내용을 보여 주는 수행 결과물이다. 예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 두 학습자는 첫 단계에서 다음처럼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였다.

<예시 1의 학습자>

- 1) 주장하다는 어떤 사람이 한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지지한다는 행동입니다. (√지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 2) 말하다는 사람이 말을 하다는 (√한다는) 뜻이다.
- 3) 찬성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거나 (√말 또는) 행동을 인동하다는 (√인정한다는) 뜻이다.
- 4) 동의하다는 사람이 어떤 관점거나 행동을 인동하다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 5) 반론하다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관점에) 반대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6) 반박하다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관점에) 반대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7) 반대하다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인정하지 않다는 (√않는다는) 뜻이다.

<예시 2의 학습자>

- 1) 주장하다: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 2) 말하다: '주장하다'와 똑같이 쓴다.
- 3) 찬성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 4) 동의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한다.
- 5) 반론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 6) 반박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동의할 때 (√동의하지 않을 때) 쓴다.
- 7) 반대하다: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부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사전을 찾아보지 못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 내에서 단어를 정의할 수밖에 없어서 예측했던 것보다 이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러나 수행 결과는 예상처럼 단순하며 동어 반복적인 뜻풀이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둠별 학습자 간 토의 활동 후 어휘의 뜻풀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예시 1 및 예시 2의 학습자>¹⁰

- 1) 주장하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때 사용한다.
- 2) 말하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 3) 찬성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옳다고 판단할 때 쓰는 표현이다.
- 4) 동의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 5) 반론하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펼쳐서 반박한다는 뜻입니다.
- 6) 반박하다: 상대방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 7) 반대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에 따르지 않고 거스를 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주어진 어휘의 뜻풀이를 모둠별로 토의하면서 서로가 이해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썼던 표현들을 나눔으로써 뜻풀이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휘

10 어휘의 뜻풀이가 수정, 보완된 학습자 수행 결과물은 지면 관계상 <부록 1>로 첨부한다.

뜻풀이에 보다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쓰기는 그 결과물에 비해서 교수 학습 단계를 수행하기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영역이다. 학습자들이 쓰게 만드는 데까지 유도하는 단계와 쓰게 하는 단계, 그리고 쓴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유기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앞의 방식으로 쓰기 전 단계를 설계하고 수행한 이유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쓰게 하는 단계 전까지 어휘의 뜻풀이에 중점을 두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학업 목적의 한국어 쓰기에서 필요한 사고의 정교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기초 단계를 수행한 학습자들은 다음의 적용 단계를 위한 과제물을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차시에 발표 및 토의를 통한 과제 확인에 이어 적용 1, 2, 3단계 및 정리 1, 2단계를 3차시에 걸쳐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학습자들이 적용 1단계에서 교수 학습한 과제의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앞에서 정의한 뜻풀이와 비교해 또 차이가 난다.

<예시 2 학습자의 개인 사전 어휘 뜻풀이>¹¹

- 1) 주장하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때 사용한다. 예: 나는 여성아동보호법을 제정한다고 주장한다.
- 2) 말하다: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어투는 '주장하다'보다 약함. 예: 부모님은 내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 3) 찬성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 의견, 제안에 대해 옳다고 판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예: 시민들은 성폭행 범인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제안을 찬성한다.
- 4) 동의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이다. 예: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합니다.
- 5) 반론하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펼쳐서 반박하는 것이다. 예: 변론대회에서 강력히 반론해서 이겼어요.
- 6) 반박하다: 상대방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 반대한다는 뜻이다. 예: 변호사는 증인을 엄정히 반박한다.
- 7) 반대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나 제안에 따르지 않고 거스를 때 쓰는 표현이다. 예: 나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다.

이 자료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앞 단계에서 수행했던 토의에서 얻은 뜻풀이 내용보다 조금 더 정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차시에서 학습자들은 적용 2, 3단계로 텍스트를 읽고 한 편의 글을

11 이 수행 결과물도 논문 말미에 <부록 2>로 제시한다.

쓰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우선 2단계에서 제시된 텍스트와 수행의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뜻풀이 어휘가 포함된 읽기 텍스트와 활동 자료

노키즈존 찬성 대 반대

'노키즈-존(no-kids zone)'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아이들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자 출입을 금지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질서,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과 그 가족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실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상점과 다른 고객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갈수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이니 대화와 캠페인 등으로 교육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반론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어떤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자신은 어느 것에 찬성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써 봅시다.

1. '노키즈존'은 2011년에 미국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 지역에 위치한 맥데인(McDair's)이라는 레스토랑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것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에서는 일등석에 아동 탑승을 금지시켰고, 미국 어느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가 없는 쇼핑 시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 자신이 찬성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노키즈존 반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위해서는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공공장소에 나와야 자기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옳은지 몰라지 않게 될 수 있다. 공짜로 거처를 제공하고 책만 보고 공부하면 기억을 선행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생각한다. ~~어떻게~~ 아이는 공부와 미량까지도 부모님의 교육만을 통해서 교육을 공부하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개인 관계를 잘 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 소리를 내거나 심한 장난을 치거나 다 아이의 천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나? 만약 당신이 높은 입장에서 출입을 금지한 것을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아이는 공공장소에 처해야 ~~어떻게~~ 대의가 바르도록 하기 배울 수 있다. 생각된다.

★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에 반박해 보세요.

또한 부모님은 아이의 첫 선생님이라고 본다. 부모님의 행동과 생각, 예절과 태도 ~~이런~~ ^이 이런 행동은 ~~어떻게~~ 부모님은 아이한테 ~~이런~~ ^이 예의를 바라는 행위를 가르쳐 주어야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아이로 ~~어떻게~~ ^이 귀찮은 과정은 힘들지만 부모님도 ~~이런~~ ^이 과정 중에 많이 배울 수 있다. 만약에 어떻게 귀찮은 과정이면 대화와 캠페인 등의 교육도 받아도 좋다고 본다.

이 텍스트는 앞 단계에서 교수 학습한 어휘, 즉 학습자 자신들이 뜻풀이 정교화를 통해서 이해한 어휘를 문장 구성의 중심에 두고 교육용으로 가공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매우 빠르게 이해하였다. 그리고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서로 토의하면서 어휘 뜻풀이 정교화 방식을 적용한 쓰기 교육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어휘의 뜻풀이 연습 과정과 텍스트를 읽고 찬반의 글을 쓰는 절차만으로는 사고의 정교화를 통한 쓰기 능력의 신장 방안이 다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으로 적용 3단계를 구성하여 학습자가 주제를 정하여 읽은 텍스트와 유사한 한편의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그림 5

어휘 뜻풀이를 활용한 쓰기 활동 자료 1

어휘 뜻풀이-쓰기

다음을 참조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보세요.

[유형1]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워서 글을 만들어도 되고, [유형2]처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글을 써도 됩니다.

[유형1]

‘안락사법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심사한다.
 ‘안락사법률’은 말 그대로 악법 병원에서 안락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일곱명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포기하면서 생겨난
 입니다.
안락사법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연명을 하는지 차라리 주의를 가진다면서 죽으게 더 좋다. 안락사법률 결정 합법화
하게 생사하면 환자도 고통을 줄일수 있고 가족들의 경제 스트레스도 줄”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실제 한국보건복지부 2022 23 안락사법률을 심사할 때부터, 생명 환자 중에 일곱명 환자의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안락사
구할 방법이 없어서 안락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을 심사한 것 아닙니다 옳습니다
안락사법률을 심사 하는 것 옳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은 한번 아작 만 있으면 연명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생명 명예 를 함부로 죽여 하면 생 전혀 한 생명 에서 보통 과 다 는 것 아니다
 ”라는 반론을 펼칩니다.

적용 3단계에서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이 쓸 내용과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는 [유형1]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그림 4에서 제시한 텍스트의 프레임을 활용한 것이다. 읽은 텍스트와 유사하게 새로운 주제로 텍스트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주제화된 텍스트 쓰기 연습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어휘 뜻풀이를 활용한 쓰기 활동 자료 2

[유형2]

-는 것을 말하다. 찬성하다. 주장을 내세우다. 강력하게 말하다.
반론을 펼치다. 반대하다. 다음처럼 반박할 수 있다.

혹시 '여성전용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성전용칸'은 말 그대로 여성자들만이
쉴 수 있는 카차칸 그걸 지향할 겁니다. '여성전용칸'은 앞서 지향할 그걸 기하에서
미어난 성취감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성전용칸'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용 여성이. 일상복과 같이 배려를 필요하는 ~~다들~~
입니다. 그래서 '여성전용칸'은 성취한다는 것은 액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이라는 주장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음이 되면 지향할에서 성취행사전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 '여성전용칸'은
주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확한~~ 자신에 대해 강한 보호 의식은 가지고 있는 여자들 모두
'여성전용칸'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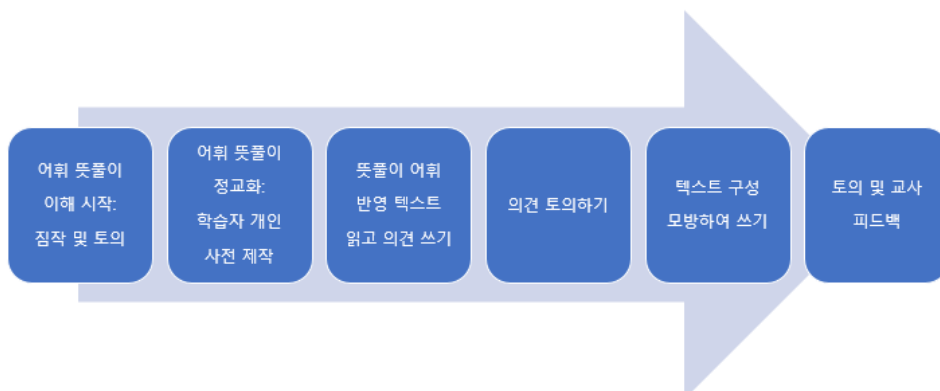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전용칸'은 국가 성별관 사회관으로 전향하고 ~~역대별로~~
주장하는 ~~비합리~~ 많은 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만 보호하고 남자는 버려지고 생략했다는
동음이나는 편을 편렸습니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음입니다.~~

그림 6에 보인 [유형2]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써 보는 과제였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프레임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어서 정리 1, 2단계를 설정해 토의와 피드백을 수행함으로써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쓰기 교육 방안을 마무리하였다. 지금까지 구성한 교수 학습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통한 쓰기 교수 학습 단계



V. 결론

국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60여 년이 흐르면서 한국어 교육은 내적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학업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학습자 집단도 다양화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별로 학습 목적과 환경 등이 다르고 학습자 개인에 따라서도 학습 배경과 스타일 등에 차이가 존재해 이를 고려한 교육 방안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여러 여건이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의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능력 중에서 학업 능력의 형성과 수행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쓰기 능력의 향상에 관해 논하였다. 특히 학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어휘의 학습을 쓰기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적용한 쓰기 교수법을 제안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먼저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의 양상을 간추려 보고 학업 목적의 학습자에게 쓰기 능력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와 관련된 제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쓰기 교육으로 맥락화함으로써 교육적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여 교수 학습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실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쓰기를 어휘 학습의 강화 및 확인을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서 취급하던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이 글에서는 어휘의 뜻풀이 정교화 과정을 통한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업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정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두 가지가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는 데 반해 쓰기 능력의 신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소규모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시도였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휘 사용에 관한 뜻풀이에서는 그 자체의 의미적 기술뿐만 아니라 격률 관계(서술어의 자릿수)와 조사 결합 관계 등도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학습자가 제시된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기존에 학습한 문형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글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기에 그 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학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광해. (1991).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유의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해. (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김광해. (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광해. (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26, 5-40.
- 김유정, 방성원, 이미혜, 조현선, 최은규. (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9(1), 37-94.
- 김정숙. (1999).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195-213.
- 김한란 외(역). (2007).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도원영. (201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정보. *한국사전학*, 16, 106-13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편). (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송지연, 조형일. (2017).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세 문장 쓰기’ 과제 개발 연구. *국어국문학*, 180, 221-255.
- 옥철영 외 3인. (2011). 사전 뜻풀이를 이용한 용언 의미 군집화. *인지과학*, 22(3), 271-298.
- 윤구희. (2012). 중학교 국어교과서 날개 어휘 선정 및 뜻풀이 방식의 문제. *한국어교육학회(제273회)·국어교육학회(제50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5-88.
- 이기황. (2007). 사전 뜻풀이문의 패턴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9), 123-142.
- 이은경. (2016). 한국어 사전에서의 연결 어미의 뜻풀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293-324.
- 조재수. (2003). 《표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살펴보기.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4.
- 진대연. (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쓰기 지도 능력 신장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8, 149-166.
- 최정진. (2014). 한국어 사전의 동사 항목 미시 구조 설계. *어문학*, 126, 137-16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1). *2001년 통계연보*.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2017년 9월호 통계월보*. 법무부.
- 한영균. (1994). 명사류 의미망 구축을 위한 사전 뜻풀이의 어휘구조분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326-332.

- 홍중선. (2015).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뜻풀이. *Journal of Korean Culture*, 3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29.
- Carnap, R. (1947). *Meaning and Necessity*. Chicago University Press.
- Katz, J. J. & R. I. Nagel. (1974). Meaning Postulates and Semantic Theory. *Foundations of Language*, 11(3).

<부록 1> 학습자의 어휘 뜻풀이 수행 결과 예시

한국어 쓰기 연습 2

3단계: 모둠별 친구들과 자신이 만든 문장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메모

4단계: 이제 친구들과 함께 대상 어휘의 뜻풀이를 만들어보세요.

대상 어휘	뜻풀이 안내 표현	뜻풀이 만들어 보기
주장하다	의견 내세우다	'주장하다'는 자기 의견을 내세울 때 사용한다.
말하다	알려다 이야기하다	'말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있을 때 이야기 한다는 뜻입니다.
찬성하다	행동/의견/제안 좋다/옳다/판단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옳다고 판단할 때,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의견 승인하다/시인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반론하다	논설/논평 다른 의견 펼치다 반박하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펼쳐서 반박한다는 뜻입니다.
반박하다	주장 다른 의견 반대하다	상대방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 반박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하다	행동/견해/제안 따르지 않다 맞서다/거스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에 대해 다르지 않고 거스를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5단계: 학습자 모둠별로 작성한 뜻풀이를 발표해 보세요.

메모

<부록 2> 학습자 사전 만들기 과제 수행 결과 예시

한국어 쓰기 연습 3

[과제]

대상 어휘와 뜻풀이를 정리하여 자신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세요.

대상 어휘	뜻풀이 만들어 보기
주장하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 나는 사형제 폐지를 ^{여성아동보호법 제정}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다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어투는 '주장하다'보다 약함. 예: 부모님은 내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찬성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 의견, 제안에 대해 옳다고 판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예: 시민들은 성폭행 법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제안을 찬성한다.
동의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이다. 예: 나는 너의 말을 동의한다.
반론하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에 대해를 펼쳐서 반박하는 것이다. 예: 변론대회에서 강력히 반론해서 이겼어요.
반박하다	상대방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 반대한다는 뜻이다. 예: 나는 사형제 변호사는 증인을 엄정히 반박한다.
반대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나 제안에 따르지 않고 거스릴 때 쓰는 표현이다. 예: 나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

조형일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Tel: +82-(0)32-835-8118

Email: jeongam@inu.ac.kr

진대연

호원대학교 한국어학부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Tel: +82-(0)63-450-7681

Email: jdy0917@howon.ac.kr

Received on 14 December 2017

Reviewed on 18 December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2 December 2017

Accepted on 22 December 2017